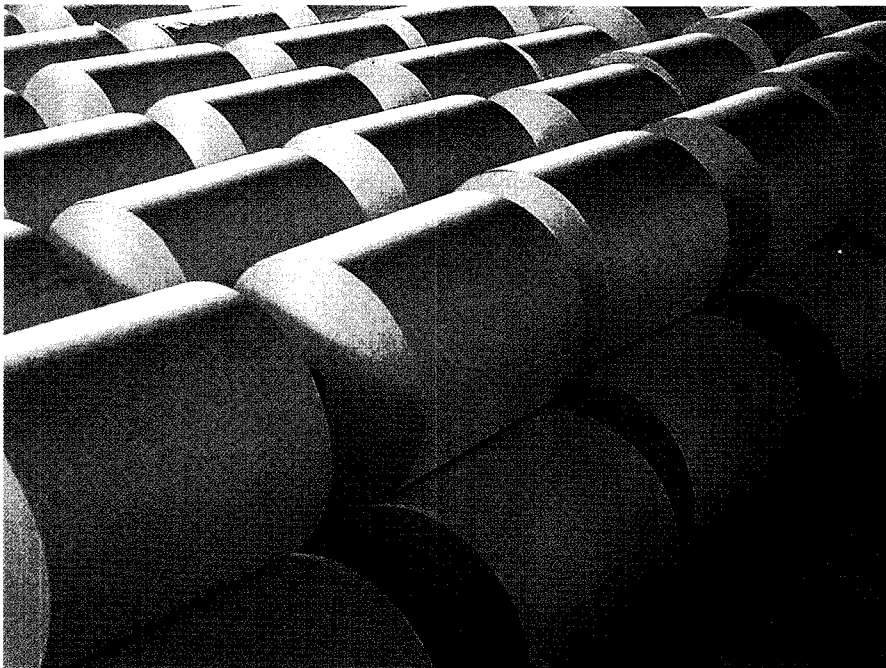


## 2008 인쇄업 경기결산

# “내우외환” 주름살 깊어졌다

2008년 인쇄업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침침산중” 혹은 “실상가상”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전년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특별하게 수주물량 증대요인이나 감소요인은 없었지만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와 그 영향이 인쇄업계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뻗속까지 얼어붙게 만든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원자재가격이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면서 원가압박의 한 원인이 되었던데 이어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로 하루에 환율이 200원 이상 등락을 거듭하는 비상 국면이 전개되어 정상적인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900원대이던 달러가 1500원에 육박하는가 하면, 800원대이던 엔화도 1500원을 넘어서면서 인쇄기계 수입업체는 물론 구매를 예정한 인쇄업체에게도 추가부담을 안겨주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상반기의 펄프가격 상승이 지류가격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 인쇄사들에게 구매원가에 부담을 주고 채산성 악화를 가져왔다면 하반기의 환율변동의 영향은 당장 인쇄사들에게 파급되지는 않았지만 자본재로서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하는 교체 및 구

매 시기를 기능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 영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인쇄’와 ‘환경경영’은 2008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4년마다 개최되는 드루파2008에서도 별도의 전시관이 설치될 정도로 인쇄업계에 디지털화는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어진 국내의 KIPES2008에서도 디지털인쇄의 바람은 거세게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인쇄산업과가 설치되어 인쇄업계의 숙원이 이뤄지는 쾌거도 있었다. 비록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을 함께 다루기는 하지만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인쇄업계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기대했다. 이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의 급등락에 시달린 인쇄업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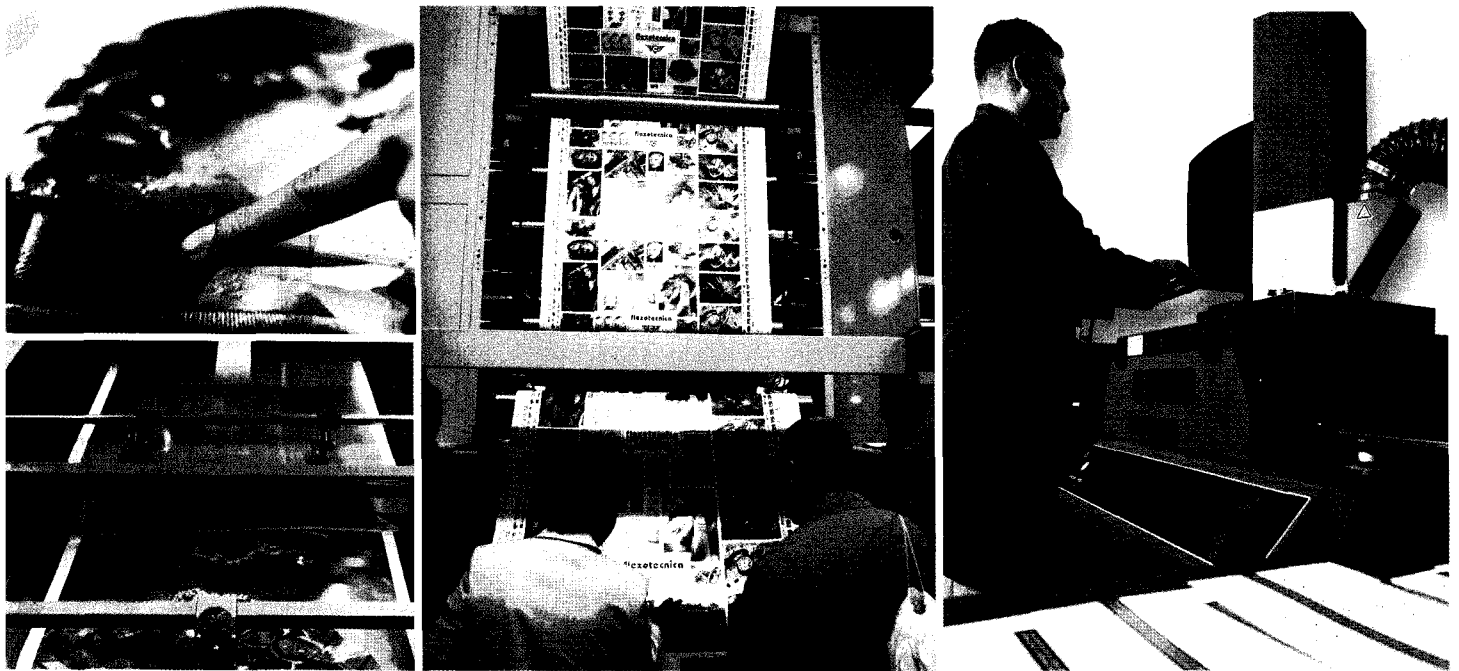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친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몇몇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쇄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잉크업계와 제지업계를 비롯, 인쇄기계 제조 및 판매사, CTP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부문에 걸쳐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해를 넘기고 있는 대기업의 인쇄업 진출도 올해 주요 이슈의 하나였다. 지난해 인쇄업 진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였던 한솔 제지에서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가운데 대영인쇄를 인수한데서 비롯한 인쇄업계의 갈등은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인쇄업계 주요 단체들은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인쇄물량의 14% 감소 및 1만8천여 업체의 줄도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청와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호소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인쇄 시장의 성장에 따라 트랜스프로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맞춤형 DM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트랜스프로모의 성장 전망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요 디지털인쇄기 제조, 판매사에서는 앞 다투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쇄업계의 영원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서체와 관련된 폰트협회가 발족되어 관심을 끌었다. 늘 가까이 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서체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상반기- 원자재가 급등, 하반기-환율 폭등

2008년 상반기에는 달러화의 약세 기조 및 국제 투기 세력의 영향으로 원재료구입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7년 BIS 100~108에 비하면 최고 50%이상 크게 상승해 129~165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인쇄업의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용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와 채산성 악화 및 매출, 신규 수주 증가율 등에 큰 부담을 주었다. 또 인쇄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계는 해외 펄프가격의 압박에 따라 인쇄용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인쇄사들에게 원가 부담과 채산성 악화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사 계획에 대해 제지업계는 펄프의 구매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다하게 인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

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와 달리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가격은 급속하게 안정을 찾아갔으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주요 각국은 환율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 심리적인 위축이 격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900원대에 머물던 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에 육박했으며 엔화는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문은 주로 인쇄기계 수입업체들로 극도로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을 도저히 펼칠 수 없는 곤경을 겪었다. 인쇄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예정인 인쇄사들도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상승하는 환율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으로 구매 일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점차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인쇄업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드루파 2008, 키페스 2008 열려

미래 인쇄기술을 한눈에 조망해 보는 인쇄기자재전시회인 '드루파2008'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디지털인쇄기의 신제품과 신기술이 대거 출품되어 미래 인쇄를 가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드루파 2008은

전 세계 1800개 업체가 참여하고 17만㎡ 이상의 전시면적에 40만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쇄인도 1200여명이 참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시장 규모도 디지털 시장의 확장에 맞춰 8a홀과 8b홀이 디지털 전용홀로 확대되었다. 하이델베르크 등 주요 인쇄기기 메이커들이 대거 출품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엠피를 비롯한 10여개 업체가 자체 부스를 마련해 홍보에 나섰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제16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2008)가 열렸다. KIPES 2008은 전시회 개최 30주년을 맞아 예년에 비해 크게 강화된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분명한 성장



을 이룩했지만 몇몇 대형인쇄기 공급업체들의 참가가 저조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숙제로 남았다.

### 새로운 블루오션 트랜스포모 시장

디지털 인쇄기의 성능향상과 시장 확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주요 시장으로의 트랜스포모의 성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가변데이터 작업에 대한 탁월한 효율성을 입증한 디지털 인쇄는 바코드 넘버링, DM 시장 등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1:1 인쇄 작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랜스포모 시장은 주요 고객인 기업에서 인쇄업계의 설비 교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아직까

지 '휴화산'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지만 기존 장비의 노후화, 풀컬러 1:1DM인쇄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출현 등 제반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관련기업들은 본격적인 경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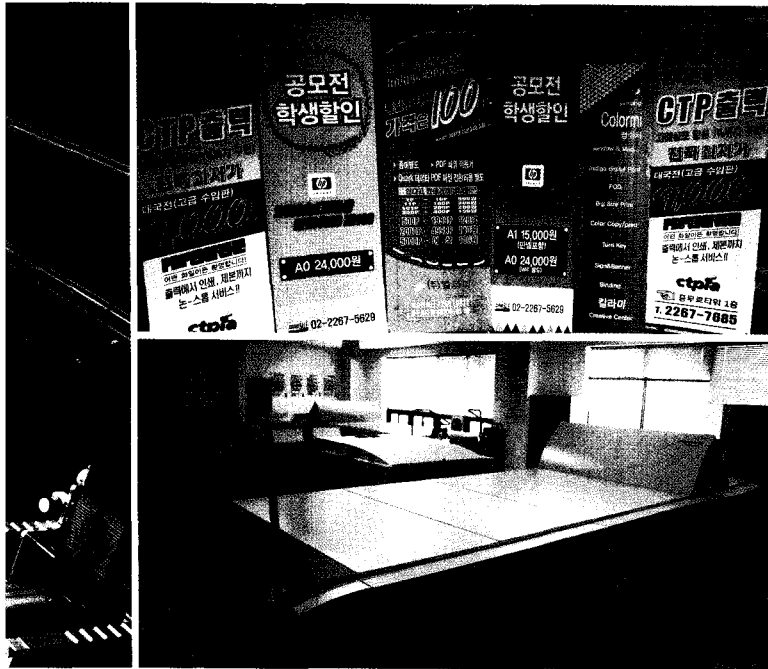
선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후지제록스는 1:1 맞춤형 인쇄에 적합하게 드라이잉크를 채용해 인쇄품질을 한 단계 높은 iGen3를 비롯한 자사 제품군에 최근 출시한 맞춤형 문서제작을 위한 핵심 툴인 XMPie(엑스엠파이)를 탑재해 트랜스포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가변 데이터 출력, 웹 기반 인쇄, 통합 크로스 미디어 출판 그리고 맞춤형된 정보전달 및 응답형 광고에 적합한 엑스엠파이는 개별적인 이미지 창출, 데이터의 분석 등으로 맞춤형 인쇄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 분당 80매의 작업속도를 갖고 있어 중소형 상업인쇄에 뛰어난 적성을 보여 주고 있다.

HP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디고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인디고 시리즈는 일반적인 상업인쇄를 비롯,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워크플로의 자동화와 1달에 500종 이상의 각기 다른 자료를 출력할 수 있어 POD출판과 1:1맞춤형 DM인쇄에도 적합하다. 또한 총판인 후너스와 한국HP의 협력으로 탄탄한 팀웍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세의 총판인 SK네트웍스는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2007년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마케팅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트랜스프로모에서 앞서 가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솔루션으로 국내

쇄방식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코팅이 가능한 토너를 이용, 개별 출력물의 고급화와 차별화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도리코와 코닥은 공동마케팅으로 1:1맞춤형 인쇄 시장에 다가서고 있다. 버사마크와 넥스프레스가 대표 제품군으로 버사마크 VL 20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잉크젯 엔진을 갖고 있으며 초고속 잉크젯 방식을 채용해 분당 A4 이미지 2천52매를 처리한다. 운전 방식과 유사한 롤지를 채택해 낮은 비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M사, 기업체 데이터 센터, 상업 인쇄 시장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다. 넥스프레스 2500은 ORC방식 채용으로 고화질, 저비용을 실현, 오프셋인쇄와 유사한 고품질을 구현하는 5색 컬러를 실현하며 자동으로 양면 인쇄시, 앞뒤 핀을 일치시키는 기술 및 첫 장과 마지막장의 컬러 값의 오차를 최소화한 환경 컨트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 제지업계 원자재가 상승압박, 실적 다소 호전

2008년도 제지업계는 그동안의 실적부진과 적자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다. 내수 출하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상반기에는 지속된 고유가 기조와 펄프가격 인상에 압박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환율의 상승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신규설비의 도입이 끝나 당분간 대규모 투자가 없을 예정인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 합병이 계속 이뤄졌다. 무림페이퍼가 동해펄프를 인수하는데 성공 100만 톤 생산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또한 펄프에서 제지로 이어지는 일관공정을 갖추는데 성공하면 향후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솔제지도 이엔페이퍼의 인쇄용지 부문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 45%의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패키지인쇄업체도 사들여 인쇄업계와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자사의 물량을 위주로 처리하며 상업인쇄시장에 뛰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인쇄업계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의 트루프레스젯 520은 고객 개개인에 맞춘 고부가가치 인쇄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퍼스널 대응의 카탈로그, 다이렉트 메일(DM), 풀 컬러 청구서 등 다양한 가변인쇄가 가능하다. 분당 약 840 페이지의 고속인쇄가 가능해 '1:1 마케팅'과 '짧은 납기'가 좌우하는 트랜스프로모 시장에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캐논코리아는 흑백 디지털 인쇄기 iR 7105와 컬러디지털인쇄기 iPR C7000VP로 트랜스프로모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VIP고객을 겨냥해 철저한 정보보안을 기해 자체 생산라인 구축과 컬러를 이용한 고급 인쇄를 원하는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인쇄 기술 향상으로 오프셋 인쇄와의 품질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며 다양한 인

### CTP 출력 전문점 증가, 가격 인하 경쟁 심화

프리프레스 업계도 전체적인 업황의 부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가운데 CTP전문 출력점이 증가하고 이전에 비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CTP출력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진 현상은 CTP전문 출력을 내세우는 전문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배경으로 박리다매를 앞세운 영업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CTP 1판의 가격이 7천원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정거래처가 많은 대형인쇄사의 CTP출력실에서는 품질 고급화로 전문점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향후 CTP출력 단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CTP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감원, 폐업 잇따른 출판계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 한동안 회자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 출판업계에는 다시 불어 닥친 한해였다. 감원, 경비 절감 등의 지구책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쇄용지가격의 영향이 고스란히 출판업계에 전해졌다. 제작비용은 2~30%씩 올랐으나 책값을 올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정가보다 할인되거나 쿠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만이 명맥을 잇고 있기에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등록 출판사 3만개 가운데 매달 1종 이상 꾸준히 책을 내는 곳이 400~500곳에 불과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출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 5000개에 달하던 서점들은 2000여개로 감소했다.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들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매출의 증가가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 조사에 따르면 문화생활비 중 '도서·잡지 구입비' 비율은 2004년 16.2%에서 2007년 1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서울시 통계에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 또는 외국계 등 거대 자본이 유입으로 출판계도 승자독식의 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거액의 로열티를 들여 외국 저작권을 사오고,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들여 책을 광고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출판시장의 쓸림현상이 심해졌으며 이는 콘텐츠의 경쟁력까지 무너뜨려 불황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파주출판단지 2차 공사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한편에서는 출판단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비자와의 격리, 제작과정에서의 물류비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 입주업체는 인터넷과 통신으로 원거리에 있는 고객과 협력업체들의 간격을 좁히는데 힘쓰고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고 제작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다시 서울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지 조성 때부터 예측된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단계 확장 공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인디자인의 보급 본격화

올해 기획, 편집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출판편집은 좀 더 책 자체에 의미를 두려는 경향이 강화됐으며 사보편집은 최근 사보가 기업내외의 커뮤니케이션 톨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수요도 꾸준히 늘어났다. 발행부수도 1~2천부에서 많게는 수만 부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도 성장했다. 이전까지 가격경쟁이 주로 벌어졌다면,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비롯, 품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기획물의 경우에는 인쇄품질의 고급화가 진전을 보였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사내에 인쇄시설이 갖추고 있거나, 믿을만한 인쇄사와 거래하는 업체를 우선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기획, 편집 톨의 경우에는 InDesign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느끼던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통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콘텐츠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잡지사나 기획사를 중심으로 InDesign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와 함께 어도비의 PDF도 문서교환 표준으로 자리를 굳히는 양상을 보였다.

### 폰트협회 출범, 향후 영향에 관심

2008년도 서체업계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한해였다. 많은 서체들의 상품화로 유사한 느낌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차별화되지 않고 그렇고 그런 서체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서체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규 서체의 개발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일반 글씨체,

붓글씨체, 디자인서체 등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기획, 편집의 다양화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 되고 있다. 관심을 끈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서체를 개발, 무료 보급에 나선 것이다.

도시를 대표하는 서체로 대대적으로 홍보,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짧은 개발기간, 업계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미흡하여 현재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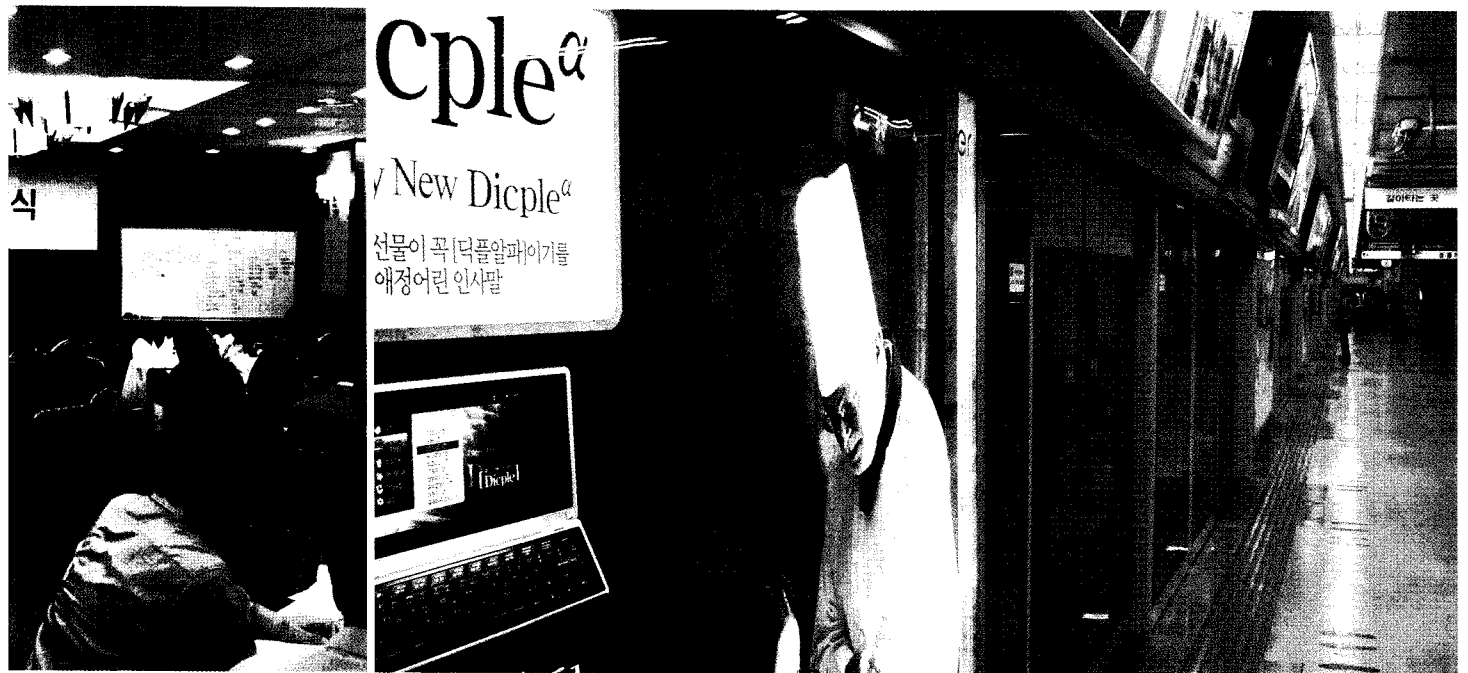
한편, 서체시장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길이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마련되는가 하면 폰트협회가 창립되기도 했다.

서체를 구매 하는 입장인 인쇄업체에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약으로 기억될 한해를 보냈다. 신입회장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송사를 벌여 한동안 협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옥외광고 개선과 각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난 6월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속으로 출범한 한국 옥외광고센터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제대회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기금조성차원에서 설치됐으며, 지방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 소속으로 출범했다.

각종 국제대회 기금을 마련, 지원하고 난립된 옥외광고 산업을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며 향후 센터의 업무가 본 궤도



든, 서체든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체 업계에서는 폰트유통이 과거의 유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오픈타입 서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픈타입이 디자이너의 선택에서 인쇄물제작까지 공정하게 부가될 수 있지만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쇄시장에서 오픈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최악의 한해 보낸 옥외광고업계

옥외광고업계는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최

에 오르면 연간 옥상간판 등 300~500개의 광고물을 설치, 운영해 300억~5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옥외광고센터측은 옥외광고 수익금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운영경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시장을 장악해온 옥외광고업계로서는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수익원을 놓치는가 하면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 분명해 업계에서는 중 소형 옥외광고업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